

광주보훈병원

광주광역시 광산구 산월동 887-1

대표전화 : 062-602-6114, 호스피스병동 : 062-602-6228



보훈병원은 국가와 민족을 위하여 공헌하거나 희생한 국가유공자와 그 가족 및 유족의 건강한 삶을 영위하기 위한 진료와 의학적, 정신적 재활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이념으로 설립된 국가 공공 의료기관입니다.

광주 보훈병원의 호스피스 완화의료는 국가유공자 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의 주민들까지 고령화와 만성 퇴행성질환 및 암 발생의 증가로 현대의학으로는 더 이상의 치료가 불가능하여 고통 받는 말기환자들에게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경제적, 영적 돌봄으로 마지막 순간까지 인간답게 가치 있는 삶을 유지하고 남아 있는 가족의 고통과 슬픔을 경감시키기 위해 총체적 돌봄을 하고 있습니다.

2003년에 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 성직자, 자원봉사자로 다학제적 호스피

스팀이 구성되어 분산형으로 전용 병실인 임종실 1개로 첫발을 내딛게 되어 어느덧 10년이 되어갑니다. 이렇게 이루어진 다학제적인 팀이 격주 월요일 오후 4시에 호스피스실에서 각 환자의 증상조절에 대해 살펴보고, 다각적인 측면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의견을 나누는 팀회의를 합니다. 2010년에는 팀원들의 노력으로 전용병실도 4인실이 1개 더 마련되었고, (재)다솜이재단의 도움을 받아 간

병인 두 명이 낮 동안 무료공동간병을 하여 오랜 기간의 간호로 많이 지치고,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족들에게 조금이나마 힘이 되고 있습니다.

자원봉사자는 기본교육을 수료한 20여명이 병실방문을 통해 사랑과 헌신으로 정서적 지지, 신체적 돌봄, 보호자 휴식 등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우리 자원봉사자는 호스피스 돌봄이 시작된 2003년부터 꾸준히 활동하여 우리병원 호스피스 역사와 함께 하신 분



들로써 대부분 3년에서 5년 이상을 활동하여 환자나 가족을 돌보는 일에 자긍심과 보람을 느끼고 있으며 병원으로서도 자랑스러운 분들입니다. 우리 병원 호스피스 발전은 이 분들이 큰 힘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봉사활동 기간이 5년 이상으로 500시간 이상 달성한 봉사자는 감사장과 부상을 드려 감사의 뜻을 전하고 있으며 앞으로 1,000시간, 2,000시간도 달성 하리라 생각합니다.

2007년부터 일반인 대상으로 신규 자원봉사자 교육을 6차까지 하였고, 활동 중인 자원봉사자들의 직무교육 및 간담회를 년 6회 이상 실시하여 돌봄 활동을 하는데 필요한 지식, 기술, 태도를 습득하고 있으며 봄 가을야유회를 통해 봉사자들간의 친목을 도모하고 소진 관리, 호스피스 자원봉사의 의미를 되새기며 새로운 마음가짐을 다지는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미술치료, 원예치료, 발맞사지, 음악연주, 생신파티, 가족사진 찍어드리기 등의 프로그램을 환자와 가족이 함께 함으로써 원예치료 후 꽃보다 더 환한 얼굴로 “우리처럼 행복한 환자가 또 있을까?” 하며 생의 마지막까지 삶의 질을 평온하게 유지하며 떠나시게 하고 있습니다.

사별가족의 관리는 장례식장 방문, 전화와 편지, 카드와 연하장으로 사별가족의 아픈 마음을 돌보고 있으며, 올해부터는 사별가족 모임도 할 예정입니다.

지난해 세계호스피스의 날에는 ‘행복한 동행’이란 주제로 광주 전남 완화의료기관들과 호스피스완화의료에 대해 바로알기 캠페인을 하였고, 우리병

원에서도 년중 행사로 완화의료 캠페인 및 호스피스 환자와 가족 돕기 바자회를 하여 의료비 지원, 간병비 지원, 장례비 지원 등을 하여 가족들의 경제적 어려움을 조금이라도 덜어주고 있습니다.

매년 120여명의 환우들이 이 세상에서의 소풍을 마치고 영원한 안식처로의 여행에 우리 광주보훈병원 호스피스팀원들의 아름다운 동행이 그들을 외롭지 않고 행복하게 하였다고 자부합니다.

